

# 전쟁의 변화와 전쟁론의 진화: 헤어프리트 뮌클러의 '새로운 전쟁' 이론을 중심으로\*

공진성 | 조선대학교

## | 국문요약 |

이 글은 독일의 정치학자 헤어프리트 뮌클러의 '새로운 전쟁'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오늘날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 전쟁의 변화와 그 의미를 살펴본다. 9.11 테러와 함께 촉발된 '새로운 전쟁' 논의는 과거의 고전적 전쟁 모델과 사뭇 다르게 전개되는 현대의 전쟁 사건들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군사적·정치적 대응을 제안하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전쟁' 개념과 이론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는 비판, 그것이 전쟁이더라도 전혀 새롭지 않다는 비판, '새로운 전쟁' 논의가 유럽중심적이라는 비판, 그것이 탈냉전 시대의 안보정책상의 필요에 의해 '새로운 적'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것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이제 쓸모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뮌클러는 이런 비판들에 대해, 그것을 전쟁으로 보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익하며, '새로운 전쟁'의 새로움은 기존에 있었던 요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며 서로 강화한다는 데에 있고, 유럽적 기원을 가진 고전적 전쟁의 모델과 그에 근거한 국제법 규범이 비서구 세계에서도 여전히 사태를 각인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전쟁' 개념과 이론은 없는 적을 단순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적의 합리적 이해를 통한 전쟁의 통제를 목표로 하며, 마지막으로 클라우제비츠가 '새로운 전쟁'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전쟁'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는 오늘날 서구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그에 대한 군사적·정치적 대응 방식을 두고 벌어지는 이론적 경쟁을 관찰할 수 있다.

주제어 | 새로운 전쟁, 헤어프리트 뮌클러, 전쟁의 변화, 유럽중심주의, 클라우제비츠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3A2065772)

## I. 서론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알카이다의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의 정치학자 헤어프리트 뮌클러는 독일정치학회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물었다. “우리는 전쟁 중인가?”(Münkler 2001, 581) 그것은 이론적인 의미와 실천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질문이었다. 군복도 입지 않고 아무런 법적·정치적 자격도 갖추지 않은 민간인 몇 명이 미국의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미국 본토를 습격한 이 행위가 과연 ‘군사적 공격’인지, 그리고 이른바 ‘대테러 전쟁’으로 불리는 그에 대한 미국의 반격이, 클라우제비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전쟁을 비로소 논리적으로 성립시키는 ‘군사적 방어’인지를 묻는 것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전쟁’이라면 북대서양안보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인 미국의 전쟁에 마찬가지로 회원국인 독일도 자동으로 개입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기도 했다.<sup>1)</sup> 이처럼 “우리는 전쟁 중인가”라는 물음은 전쟁의 개념(무엇이 전쟁인가)에 관한 이론적 질문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체적 대응 방식(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관한 실천적 질문이다.

전쟁이 벌어졌다. 과연 이 전쟁의 시작은 언제일까? 클라우제비츠의 철학적 고찰에 따르면, 전쟁은 공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방어에서 시작된다(Clausewitz 1980, 644). 그렇다면 이 전쟁도, 그것이 전쟁이라면, 미국의 방어, 즉 반격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누구에게 반격할 것을 말하는가? 정치이론가인 뮌클러가 “우리는 전쟁 중인가”라고 물은 것은 사실 독일이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전쟁의 성격이 유례없이 독특하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반격의 대상인 적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에 있었다. 적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면, 전쟁의 시작과 끝도 불

1)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대한민국도 독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유사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미국이 개입하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여온 한국인들은, 물론 이 공격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과연 ‘우리’가 전쟁 중인지 묻지 않았다.

분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전쟁’은 벌어졌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한 이 전쟁에서 미국은 “형태 없는 적”에 맞서 싸우기 위해 ‘오사마 빈라덴’과 그가 조종하는 ‘알카이다’라는 조직을 국제 테러리즘의 전형과 화신으로 등장시켰고, 그들을 지원한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 정권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테러 네트워크를 영토화하고 파악(把握)하는 데에 이용했다(Münkler 2001, 581). 적을 이런 식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과연 자기의 침략을 정당한 방어 행위로 둔갑시키는 일일까, 아니면 형태 없는 적에 맞서 싸우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불가피한 일일까?)

국제 테러리즘에 맞선 이 전쟁이 빈라덴을 죽이고, 알카이다 조직을 와해시키고, 카불에 있는 탈리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은 미국 행정부도 알고 있었다. 그것들은 이 전쟁의 목표에 불과했고 전쟁의 궁극적 목적은 국제 테러리즘의 격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태 없는 적에 맞선 전쟁은 그 시작을 정확히 알 수 없게 시작되었고 그 끝도 정확히 알 수 없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적의 실체도 불분명하고 그 시작과 끝도 불분명한 전쟁, 그래서 승리와 패배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전쟁을 굳이 ‘전쟁’이라고 불러야 할까? ‘전쟁’이 선언된 후, 전쟁 개념의 선부른 사용에 대한 비판이 실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전쟁’이라는 표현이 적의 범죄적 행위를 군사적 행위로 만들고, 그럼으로써 그 행위에 일정한 정치적·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Howard 2002, 8).<sup>3)</sup> 그래서 대안적으로 그 공격을 ‘범죄’로 간주하고 그 범죄자의 체포를,

2) 뮌클러는 전쟁의 성립을 위해 미국이 ‘형태 없는 적’을 오사마 빈라덴과 알카이다, 아프가니스탄 탈리반 정권 등으로 구체화·가시화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체가 없는 ‘적’ 자체가 미국의 ‘새로운 전쟁’을 위해 구성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3장에서 언급할 뮌클러에 대한 네 번째 비판과 관련된다. 정치적 투쟁에서 채택되는 이런 (탈)가시화 전략에 관해서는 Münkler(2009) 참조.

3)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에서 충격적 테러 범죄를 저지른 브레이빅(Anders Behring Breivik)도 자신을 십자군의 일원으로, 자신의 행위를 전쟁으로 묘사하고자 했으며,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도 자신을 군인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군사적 행동으로 묘사하려고 했다.

필요에 따라 군대의 지원은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찰의 업무로, 그리고 그 범죄자의 처벌을 법원(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과 함께 이른바 ‘테러에 맞선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예상대로 그 전쟁은 단기간에 목표로 삼았던 적들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선언한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이후 사람들은 이 전쟁 외에도 고전적인 형태의 전쟁과는 다른 형태의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진작부터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20세기 말부터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는 이 군사적 폭력들은 과연 전쟁일까, 아니면 그냥 범죄일까? 그것을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생각 없는 전쟁 수사의 남발일까, 아니면 그것을 전쟁으로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에 대한 도덕적·정치적 책임의 회피일까? 그것을 전쟁으로 여긴다면, 과거의 전쟁들과 똑같이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충분할까?

뮌클러는 2002년에 독일에서 출간된 자신의 책 서문에서 전쟁이 우리가 오랫동안 인식하지 못했지만 지난 수십 년 간 단계적으로 그 양태를 바꾸어왔으며 냉전 시나리오 전체의 특징이었던 고전적 국가간 전쟁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모델이 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이 변화한 양태의 전쟁을 기존 모델인 국가간 전쟁과 구별해 “새로운 전쟁”이라고 불렀다(뮌클러 2012, 13). 이 ‘새로운 전쟁’이라는 용어는,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영국의 정치학자 메리 켈도어가 먼저 사용했고(Kaldor 1999),<sup>4)</sup> 전쟁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마틴 판 크레펠트가 ‘저강도전쟁(Low Intensity War)’이라는 표제 아래 묘사해왔다(Van Creveld 1991). 9.11 이후 뮌클러를 포함한 여러 학자들이 ‘새로운 전쟁’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고, 이후 그 개념과 주장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

4) 사실 ‘새로운 전쟁’이라는 용어는 일반명사에 가까워서 어느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 없고, 켈도어 자신도 그렇게 주장한 바 없다. 다만,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뮌클러는 자신이 사용하는 이 용어를 켈도어가 처음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뮌클러 2012, 60, 주석 56).

되었으며, 논쟁의 과정에서 다소 부정확하게 ‘새로운 전쟁’이라는 개념의 사용 여부에 따라 여러 학자들이 “새로운 전쟁 학자들”로 한데 묶이기도 했다 (Schuurman 2010).

이 글은 ‘전쟁의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론적 응전의 한 가지 사례로서 헤어프리트 뮌클러의 ‘새로운 전쟁’ 이론을 소개하려고 한다.<sup>5)</sup> 그리고 그의 이론을 지금까지 제기된 비판적 반응들과 그에 대한 뮌클러 자신의 응답을 통해 논쟁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전쟁의 변화 현상을 개념화하고 이론화할 때 이론적·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글은 ‘새로운 전쟁’에 대한 뮌클러의 생각을 비판하거나 논박하기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소개하는 데에 집중하려고 한다. 정확하게 이해를 돕는 것에도 충분한 학술적 가치는 있을 것이다. 특히 다루는 주장과 인물이 오늘날 유럽의 안보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 II. 고전적 전쟁과 전쟁의 변화

‘새로운 전쟁’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고전적 유형의 전쟁이 거의 발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고전적 유형의 전쟁이란 국가행위자들끼리 대칭적으로 싸우는 전쟁을 뜻한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이, 그것을 전쟁이라고 부를

---

5) 뮌클러 자신은 사실 새로운 전쟁 ‘이론’(theori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정리’(theorem)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새로운 전쟁’에 관한 자신의 논의가 새로운 ‘전쟁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일상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과학적으로도 아직 ‘이론’과 ‘정리’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새로운 전쟁 정리”라는 표현도 매우 어색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론’이라는 표현을 느슨한 의미로 사용한다. 정치사상사를 시대적 도전(Challenge)과 그에 대한 (서로 경쟁하는) 지식인들의 이론적 응답(Response)의 역사로서 이해하는 뮌클러의 생각에 관해서는 Münkler & Straßenberger(2016), 18쪽 이하 참조.

수 있다면, 고전적 전쟁의 거의 마지막 사례일 것이다. 냉전이 종식된 후 고전적 형태의 전쟁은 2008년 여름 조지아 군대가 빼앗긴 자국의 영토 일부를 다시 자기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을 때 러시아 군대가 그에 대응해 조지아를 침공한 것이 유일하다. 1991년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 정도가 국가간 전쟁의 또 다른 사례로서 언급될 수 있을 텐데, 이 이라크 전쟁조차도 그 시작은 고전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개입세력의 신속한 승리 후 곧 내전으로 변했고 이 내전이 여러 해를 끌면서 과거의 통상적인 전쟁보다 사회경제 질서에 더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전혀 고전적인 전쟁이 아니었다(뮌클러 2012, 7).

동류의 국가행위자에 의해 수행되는 고전적 유형의 전쟁은 17세기 이후 유럽에서 국민국가 체계가 발전하면서 등장했다. 그것은 국가간의 대칭적 전쟁이고, 국가의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이며, 그러므로 또한 국가가 독점적으로 보유한 군대의 일이었다. 그러나 고전적 전쟁의 이 세 가지 특징이 오늘날 벌어지는 대부분의 전쟁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뮌클러의 주장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전쟁의 특징은 간략하게 비대칭성, 경제화(탈국가화), 탈군사화로 요약된다(뮌클러 2012, 10-11).<sup>6)</sup> 그리고 이 세 가지 특징은 모두 전쟁에 대한 국가 독점의 약화 또는 전쟁의 탈국가화와 관련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뮌클러는 『새로운 전쟁』에서 먼저 전쟁이 우리에게 익숙한 고전적 형태를 갖추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다시 이 고전적 형태가 붕괴되어가는 최근의 과정을 묘사한다. 전쟁을 통해 근대 국민국가가 탄생하고 그 국민국가를 통해 전쟁이 국유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고 그런 만큼 또한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새로운 전쟁’과의 대비를 위해 필요한 정도만 뮌클러의 서술에 의지해 간략하게 그 과정을 요약해 설명하려고 한다.<sup>7)</sup>

6) 이 세 가지 특징을 뮌클러는 다른 곳에서는 전쟁의 비대칭화, 탈국가화(민영화), 폭력의 자립화(자율화)라고도 표현한다(뮌클러 2012, 17).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핵심은 동일하다.

7) 자세하게는 뮌클러(2012)의 책, 특히 3장, 기든스(1991)와 티리(2018)의 책, 그리고 흥태영(2016)의 논문 참조.

전쟁이 국가의 일이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결국 전쟁이 국가들 사이에서도 쉽게 일어나지 않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전쟁이 점차 비싸진 것이다. 전쟁을 치르는 데에 드는 비용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전쟁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보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지불해야 할 유무형의 비용이 점차 더 커졌다.<sup>8)</sup> 기대수익 대비 지출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전쟁은 아무나 쉽게 뛰어 들 수 없는 사업이 되었고, 나중에는 국가조차 함부로 시도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전쟁이 점점 비싸지는, 그리고 그와 함께 국가가 전쟁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뒀클러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새로운 무기들은 한 개인이 구입하여 그것으로 봉건영주를 추종하거나 전쟁사업가들의 병사모집 장소에 출현해 전쟁 동안 계약금과 임금을 대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비쌌다. 게다가 부대들은 새로운 전투 대형을 익히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맹훈련’을 받아야 했다. 이는 전쟁 개시와 함께 그들과 계약을 맺는 식으로 해서는 불가능했다. 그들은 병영 생활을 하고 규율을 따라야 했으며, 그들이 착용한 복장, 그들이 지닌 무기는 더는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였다. 병사들로 전환된 전사들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왕의 의상’을 입었다. 이렇게 해서 국가는 전쟁의 주인이 되었고 법률가들은 국가를 따라 이를 법률적 형식들로 주조했다. (뒀클러 2017, 278-279)

화폐경제와 관료제도의 발전도 국가가 전쟁의 주인이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화폐경제의 발전은 군대의 보급 능력을 높임으로써 전투 가능 범위를 넓혔고, 관료제도의 발전은 국가로 하여금 전쟁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과세의

8) 여기에서 무형의 도덕적·정치적 비용 증가의 문제를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오늘날 비대칭적 전쟁에서 ‘강자’(민주적이고 부유한 국가)가 약해지는 핵심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형태로 국민들로부터 수취할 수 있도록 했다.<sup>9)</sup> 이런 과정에서 작은 정치공동체는 소멸하거나 더 큰 정치공동체에 흡수되었고, 결국 값비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큰 정치공동체들만 살아남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근대 주권국가이다. 이 국가들은 원칙상 서로 비슷했고, 그러므로 또한 호혜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때 종교를 괄호로 묶는 것, 다시 말해, 각 국가의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sup>10)</sup> “Cujus regio, ejus religio”라는 원칙이 오랜 전쟁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대칭적이고 호혜적인 국가간 관계의 발전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동일한 (종교적 의미의) 문명권 내에서만 적용되는 제한적 관용의 원칙이었다. 문명들 사이에 또는 문명과 야만 사이에 작동하는 원칙은 아니었다.<sup>11)</sup>

20세기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전쟁을 식민지 쟁탈과 식민지에서의 수탈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묘사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고전적 전쟁은 중세의 전쟁처럼 행위자들이 그로부터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합리성을 따르는 국가들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채택하는 수단이었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적 목표를 설정하고 전쟁을 수단으로 삼은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수단으로서 더는 유효하지 않을 때에 다른 수단이 강

---

9) 막스 베버는 근대국가의 등장을 노동수단으로부터 노동자가 분리되듯이 행정수단으로부터 관료가 분리되고 전쟁수단으로부터 군인이 분리되는 현상과 연결해 설명한다 (Weber 1984, 608). 이 과정을 민클러는 또한 근대적 ‘주권’ 국가의 등장과 관련해 설명하는데, 이로써 통치자가 봉건계급과 용병대장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Münkler & Straßenberger 2016, 133 이하).

10) 이에 관해서는 Schmitt(1974), 112쪽 이하 참조.

11) 이런 맥락 속에서 전쟁이 합리성의 결여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왜곡과 실패에서 비롯하며, 그러므로 문화간 충돌이 동일 문화 내에서의 충돌보다 더 위험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관해서는 Münkler(2000) 참조. 그래서 또한 현대의 전쟁 통제와 관련해 지구적 차원에서 적어도 공통의 (종교)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른바 “세계윤리구상”도 이와 관련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하나의 예로서 쾨링(1992) 참조.



구될 수도 있었지만, 그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이라는 수단이 쉽게 포기되지도 않았다. 국가의 존립이나 위신과 관련된 경우, 비록 전쟁을 통해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없더라도, 전쟁은 강행되었다.<sup>12)</sup>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쟁은, 그것이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수단으로서 포기될 수밖에 없었다.<sup>13)</sup> 예컨대, 상호 핵무장에 의해 전쟁이 자기의 절멸을 함께 의미하게 되었을 때, 전쟁은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었다.

전쟁이 너무 비싸서 미국과 소련 같은 초강대국조차 전쟁을 치를 생각을 쉽게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역설적으로 새로운 전쟁 수행의 가능성이 생겨났다. 크레펠트가 ‘저강도 전쟁’이라는 표제 아래 묘사한 전쟁들이 바로 ‘고강도 전쟁’이 불가능한 때에 세계의 주변부에서 대리전의 형태로 또는 독자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 가운데 21세기의 ‘새로운 전쟁’ 논의가 주목하는 것은 자기 논리에 따라 세계의 주변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전쟁들이다. 이 전쟁들은 중심부 국가들의 대리전이 아니어서도 20세기의 주변부 대리전들과 다르게 중심부 국가들의 결정에 따라 간단히 종식되지 않지만, 전쟁의 종식을 결정할 그 외의 다른 어떤 권위체가 없어서도 쉽게 종식되지 않는다.<sup>14)</sup> 21세기 초에 발칸 반도에서 벌어진 전쟁들에 주목한 영국의 정치학자 메리 캘도어는 이처럼 전쟁의 주체도 분명하지 않고, 전쟁의 시작과 끝도 뚜렷하지 않으며, 범죄와도 잘 구별되지 않는 전쟁에 ‘새로운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계의 주변부, 또는 뮌클러(2012, 19)가 “지난 세기의 초반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분할했던 제국들의 주변부와 분할 단면”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20세기 말에

12) 경제적 제국주의론에 대한 비판과 국가간의 위신경쟁에 관해서는 뮌클러(2015), 79-90 쪽 참조.

13) 여기에서 또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정치와 종교, 정치와 도덕의 분리이다. 오늘날 다시 전쟁이 치러지는 곳에서 이 ‘근대적’ 분리가 약하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14) 이 점에서 크림리아 반도에서 최근에 벌어진 전쟁은 차라리 과거의 대리전에 가깝다. 그러나 아직도 진행 중인 시리아 내전의 경우 전쟁의 중단과 관련한 협상의 주체조차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일어난 전쟁들은 21세기 초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지속되고 있다. 9.11 테러 후에 개시된 이른바 ‘대테러 전쟁’을 비롯해, 그 전부터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의 전쟁, 그리고 레반트 지역에서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대규모 난민 사태를 일으킨 시리아 내전 등이, 큰 불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작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다. 여기에서 ‘불꽃’이라는 비유는 자못 의미심장하다. 혹자는 전쟁이 마치 불꽃이 연소할 모든 것을 태우고 나면 저절로 꺼지듯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므로 그런 전쟁에 개입하지 말고 그냥 싸우도록 내버려두라고 조언한다(Luttwak 1999). 그러나 뮌클러는 이 전쟁의 불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그 불꽃이 타는 데에 필요한 물질이 매우 값싸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화의 영향으로 그 값싼 연소 물질이 불법적으로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전쟁 자체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그 저렴한 전쟁을 작동시키는 (그림자) 경제가 개방되어 있다는 말이다(뮌클러 2012, 28 이하).

전쟁은 도대체 왜 저렴해졌을까? 일단 현상만 놓고 보면, 그 이유는 새로운 전쟁이 비싼 최고급 무기를 이용하지 않고, 자동소총, 지뢰, 다연발로켓포와 같은 경량무기들을 이용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끔씩 사용되는 중량 무기들도 신제품이 아니라 재고품이기 때문이다. “전 지구적으로 치러진 동서 냉전의 시기에 각 진영의 열강들이 가져다준 그리 비싸지 않은 군사 장비들”이 전쟁에 대한 국가 독점이 약해진 후 새로운 전쟁의 행위자들에 의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뮌클러 2012, 158). 그리고 이렇게 저렴한 무기를 이용해 전쟁이 치러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전쟁이 동등하게 무장한 적을 상대로 하지 않고, 대개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국가의 독점적인 일이 되면서 어렵게 형성된 국제법적 규범, 즉 민간인을 상대로 한 폭력 사용을 금지하는 규범이 이 전쟁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간인을 상대로 한 폭력이 전략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sup>15)</sup>

15) 여성에 대한 성폭력까지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뮌클러(2012), 171쪽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이 체계적으로 무시되고 민간인에게 공격이 집중될 때 비전투원보다 전투원의 생존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 더욱이 전쟁이 유럽 중세의 전쟁처럼 민간경제를 약탈하면서 벌어지면 전투에 참가하는 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에도 유리하다. 그리고 민간경제가 이렇게 약탈되고 파괴될 때 당연히 고용상황이 나쁠 수밖에 없어서 잉여인력이, 특히 남성 청소년들이, 전쟁에 끊임없이 값싸게 공급된다. 종교적 금기나 낮은 문해력 탓에 출산율이 높은 경우 ‘폭력 시장’에 공급되는 인력은 더욱 많아진다.<sup>16)</sup> 선진국의 군대들이 무기기술 측면에서나 인력공급 측면에서나 모두 점점 비싸지는 것과 다르게 새로운 전쟁이 발발하는 곳의 민병대와 군벌집단은 과거 그 지역의 정규 부대보다도 확실히 더 저렴하다. “바로 이 사실이 새로운 전쟁을 그토록 위협적인 것으로 만들며, 또한 이로써 새로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집단의 범위가 넓어”진다(민클러 2012, 160).

전쟁이 ‘저렴해진다’고 표현했지만, 민클러는 이 전쟁이 사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 전쟁의 비용이 일반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채무처럼 전가된다는 점에서 모든 전쟁은 미래의 비용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새로운 전쟁은 그 정도를 넘어 아예 값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사회를 황폐화하고 사회 질서의 근간을 훼손함으로써 “평화로운 삶의 기회 자체”를 파괴한다(민클러 2012, 160). 그러므로 새로운 전쟁의 사회적 비용은, 민클러의 생각에, 값비싼 고전적 전쟁보다도 훨씬 더 크다. 새로운 전쟁의 비용이 단기적으로 적게 든다는 사실의 이면에는 이 전쟁이 가져오는 장기적인 재앙적 결과들이 어렵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전쟁이 그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국가와 시민

---

이하 참조. 호이나츠키(Chojnacki 2006, 54-56)는 민간인에 대한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이 단순한 비합리적·야만적 행동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채택된 합리적 행동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전쟁에서 결코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16) 전쟁과 인구변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토드(2003)와 Dießenbacher(1998) 참조. 이 인구 과잉은 그곳의 폭력시장에 인력 공급을 늘려 전쟁을 값싸게도 만들지만, 북반구의 부유한 지역을 향하는 수많은 난민의 행렬을 만들기도 한다.

들에게도 도덕적으로 도전이 되는 이유이다.

새로운 전쟁이 이처럼 자기착취적으로 치러지는 배경에는 국가의 붕괴라는 현상이 있다. 이것은 새로운 전쟁이 이른바 “제국의 단층선”에서 발발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이곳의 국가들은 과거 제국들의 주변부에 위치하며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제국의 지배 아래 있다가 20세기 후반에 형식적 국가 자격을 획득했지만,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고, 그런 취약한 국가성이 탈냉전 시대에 내전의 발발로 인해 급기야 붕괴되기에 이른 것이다.<sup>17)</sup> 이런 성격을 강조하여 뮌클러는 새로운 전쟁을 “순수한 국가붕괴전쟁”이라고도 부른다(뮌클러 2012, 162). 그것은 과거 16세기와 17세기에 유럽에서 전쟁이 국민국가의 건설로 이어졌듯이 이 새로운 전쟁도 뒤늦게나마 그 지역에서의 국민국가 건설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 생각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프랑스의 역사학자 엠마누엘 토드는 냉전 후에 새로운 전쟁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폭력적 사태들을 서구중심적 시각에서 선불리 비난하는 것을 경계하며, 과거 유럽이 겪은 폭력적 근대화 과정을 뒤늦게 아랍 세계가 똑같이 겪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토드 2003; 쿠르바즈·토드 2008). 그러나 뮌클러는 이런 단순 비교를 거부한다. 전쟁이 기능하는 방식이 그때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제에 대한 처방도 다르게 제시된다. 뮌클러는 이 지역에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가 그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폭력을 통제할 ‘국가성(Staatlichkeit)’이 어디에서건 간에 그곳에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8)</sup> 이는

17) 붕괴하는(failing) 또는 붕괴한(failed) 국가에 관해서는 Münkler(2018b)와 Weiss & Schmierer(2007) 참조.

18) 이와 관련해 뮌클러는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의 태도 차이를 언급한다. “유럽인들이 이 순간에도 기존의 국제법을 계속 발전시키고 그것을 변화한 세계정치 상황에 적응시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미국인들은 단계적으로 국제법과 결별하기 시작했다. (...) 유럽의 방식이 대칭적 정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최소 조건을 복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면, 미국의 방식은 직접 비대칭화[제국화]의 경로를 따르는 것이다.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군사적 개입과 경제 원조에 의해 뒷받침되는 안정의 수출이 국가 구조가 파괴된 나라들에서 대칭성의 최소 조건들을 자리 잡게 할

새로운 전쟁의 불꽃이, 러트워크의 생각처럼 그것이 연소물을 다 태우고 나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제공되는 저렴한 연소물 덕에 계속해서 타오를 것이라는 주장과도 연결된다. 그러므로 불을 끄기 위해서는 마냥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소물의 공급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 불꽃이 타오르지 않도록 새로운 질서를 그곳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 III. ‘새로운 전쟁’ 개념과 이론에 대한 비판

지난 세기의 말부터 목격되고 있는 일련의 폭력적 사태들을 ‘새로운 전쟁’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파악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그동안 여러 비판이 제기되었다. 물론 그 비판들이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선 ‘새로운 전쟁’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들 자체가, 때때로 그들이 “새로운 전쟁 학자들”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학파에 속해 있거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새로운 전쟁’ 개념을 비판하는 학자들도 각자의 전공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부분을, 그래서 때로는 그들끼리 서로 상충하는 방식으로 지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전쟁’ 개념과 이론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비판을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sup>19)</sup>

‘새로운 전쟁’에 관한 주장들에 가장 먼저 제기되는 비판은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의 폭력적 사태들은, 행여 그것이 군사적인 외양을 띠더라도

---

수 있는지, 즉 국가적 질서의 수용에 대한 확실한 보상의 지불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뮌클러 2012, 281) 오늘날 지구적 평화라는 ‘공공재’를 제공할 제국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뮌클러(2015), 6장 참조.

19) ‘새로운 전쟁’ 논의에 대해 상이한 이유와 관점에서 비판적인 논자들로는 Mueller(2004), Shaw(2003), Newman(2004), Langewiesche(2009), Chojnacki(2006), Tosa(2010)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이하의 다섯 가지 비판적 논점들은 기존의 여러 비판들을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도, 민간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라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전쟁은 점점 쇠퇴하고 있으며, 오늘날 전쟁처럼 보이는 폭력 사태들은 “잔류 전투원”인 흉악범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불과하다(Mueller 2004). 이들이 종족적, 민족적, 이데올로기적 수사를 동원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약탈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수익을 강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대신 내세우는 것이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문명간의 체계적이거나 근본적인 충돌은 아니다. 그것은 그저 흉악범들의 기회주의적이고 즉흥적인 무장 충돌에 불과하다. 전쟁은 확실히 쇠퇴하고 있으며, 치안이 부재한 곳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은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치안의 확립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가 정확히 파악한 바와 같이,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조직된 폭력인데, 현대의 각종 폭력 사태 속에서 관찰되는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마치 ‘정치적 행위’인 것처럼 미화하기 위해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현대의 폭력 사태를 묘사할 때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그 폭력들이 전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정치적·군사적 대응보다 경찰적 대응이 더 필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멕시코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나 대도시에서 흔히 벌어지는 ‘조직폭력배들(과/간)의 전쟁’도 ‘전쟁’이라고 불리며 그 논리 또한 이른바 ‘새로운 전쟁들’과 비슷하지만, 그것들에 붙는 ‘전쟁’이라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정치적·군사적 대응을 요구하는 전쟁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범죄로 분류되듯이 ‘새로운 전쟁’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그렇게 분류되어 마땅하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비판은 ‘새로운 전쟁’ 논의가 주목하는 현상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혀 새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 비판은 현대의 폭력적 사태들이 전쟁인지 아닌지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새로운’ 현상인지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새

로운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서 제시하는 현상들은 모두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다. 오직 현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에만 새로운 것이지,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대적 국제질서가 형성되기 전에는 오히려 지배적인 현상이었다. 예컨대, 유럽 중세의 전쟁들이나 독일 땅에서 벌어진 30년 전쟁(1618~1648)은 '새로운 전쟁' 논자들이 새롭다고 주장하는 현상들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전쟁이었다.

이 비판은 (국민국가들이 중심이 되는) 근대적 국제질서의 형성 이후 전쟁이 이른바 '고전적' 형태를 갖추어 갔으며, 그에 따라 과거의 비대칭적 전쟁 방식들이 점차 사라졌지만, 오늘날 과거에 지배적이었던 비대칭적 전쟁 방식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다만 그것이 '새로운' 현상이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전적 전쟁을 '낡은' 전쟁으로, 그와 대비되는 현대의 비대칭적 전쟁들을 '새로운' 전쟁으로 명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지, 전쟁의 양태가 변했다는 진단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판은, 다음으로 언급할, 세 번째 비판의 전제인 이른바 '인지적 전환'으로 인해 사람들이 기존의 것을 갑자기 새로운 현상처럼 인식한다는 주장과는 다르다.

'새로운 전쟁' 개념과 이론에 제기되는 세 번째 비판은 그것이 시간적으로 물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지극히 유럽중심적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전쟁' 논의가 주목하는 비대칭적 형태의 전쟁이 근대적 국제질서가 형성되기 전에는 유럽 땅에서도 지배적이었지만, 유럽에 근대적 국제질서가 들어선 후에도 비서구 세계에서는 여전히 지배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세기까지 비서구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던 식민지 해방전쟁에서는 테러리즘과 게릴라전쟁(파르티잔 전쟁 또는 유격전쟁)과 같은 비대칭적 전쟁 수행 방식이 전쟁 사건 전체를 뚜렷하게 각인했다. 그러나 유럽중심적 시각에서 그저 대칭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국가간 전쟁만을 '고전적' 전쟁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유럽의 바깥에는 늘 있었던 비대칭적 전쟁을 탈냉전 시대에 새삼스럽게 발견하고서 '새로운 전쟁'이라고 부

른다는 것이다.

탈식민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 제기되는 이 비판은, 주로 법학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첫 번째 비판이나 역사학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두 번째 비판과 다르게, ‘새로운 전쟁’ 논의에 깔려 있는 유럽중심적 시각을 문제 삼는다. 그것은 분석의 대상이 시간적으로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포괄적이어야 함을 방법론적으로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유럽중심적 시각에 의해 자연스럽게 비서구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비정상’으로 분류되고 근대화라는 보편적 과정에서 벗어난 일탈적 ‘범죄’로 규정되는 문제를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전쟁’ 개념과 이론이 유럽중심적이라는 비판은 그것이 구성하는 유럽과 서구의 ‘타자’, 즉 위험한 바깥 세계의 모습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전쟁’ 논의에 제기되는 네 번째 비판은 그것이 냉전이 종식된 후 새롭게 적을 구성해야 할 필요를 느낀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에 따라 자신들의 바깥 세계를 비대칭적으로 재구성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 비판은 기본적으로 앞의 두 번째 비판과 세 번째 비판의 내용, 즉 ‘새로운 전쟁’ 논의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유럽의 근대에 초점을 맞춘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했으며 유럽의 과거와 유럽의 바깥에서 지배적이었던 현상을 배제한 결과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전쟁’ 논의가 자유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보편적 서구 문명의 “절대적인 적”(슈미트), 곧 “야만”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담론이라고 주장한다. 이 비판에 따르면, ‘새로운 전쟁’ 이론은 탈냉전 시대의 ‘낯선’ 타자에 대한 서구 세계의 존재론적 두려움을 드러낼 뿐이며, 이 이론을 통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새로운 전쟁’이 아니라 “새로운 야만”이다(Tosa 2010, 53).

이 비판은 끊임없이 동일자를 괴롭히는 타자의 존재라는 철학적 논의를 현실 정치에 대입한 것이다. 현실을 포착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이론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며, 그러므로 현실 속의 정치보다 이론 속의 정치가



더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전쟁’ 개념과 이론은 현실 속의 폭력적 사태를 단순히 소극적으로 개념화하고 이론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현실 인식을 결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벌이는 일종의 담론 투쟁의 수단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판이 현실 속에서 폭력적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새로운 전쟁’이 새로운 현상임을 부정할 뿐이다. 늘 있었던 현상이 다만 관찰자의 “인지적 전환”에 의해 마치 새로운 도전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으며(Tosa 2010, 56),<sup>20)</sup> 서구 문명에 대한 중대 위협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전쟁’ 논의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아니지만 이와 연관된 또 하나의 비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논의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이론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비판에 따르면, ‘새로운 전쟁’ 이론은 클라우제비츠를 나폴레옹 전쟁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넓은’ 전쟁을 이론화한 사람으로 잘못 이해하고서 오늘날 그의 이론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sup>21)</sup> 이 비판이 전제하는 것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이론이, 물론 그것이 국가간 전쟁의 형식과 규범이 확립되는 시기에 형성되기는 했지만, 전쟁의 양태가 바뀐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판은 다른 질문과 불가피하게 연결되는데, 곧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이론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의 이론이 오늘날의 전쟁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지이다.

위에서 나열한 비판들은 한 사람에 의해 제기되지도 않았고,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갖추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 비판들은 내용적으로, 때로는 상충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호응하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 누군가에 의해 정확하게 비판으로서 그와 같이 표명된 적이 없을 수도 있다. 위에

20) 뮌클러(2012, 150-155; 2017, 18)도 비슷하게 인지적 전환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냉전 종식 후에 유럽인들이 품었던 “역사의 종말에 대한 희망”이나 전쟁의 소멸에 대한 계몽주의적·진보주의적 환상과 관련된다.

21) 이른바 ‘4세대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이론에 대한 오해에 근거해 그것의 현대적 유효성을 부정하곤 한다. 이에 대한 비판은 조한승(2010) 참조.

서 언급한 비판들은 다만 ‘새로운 전쟁’ 이론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기존에 제기된 비판들을 이용해 재구성한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 비판들에 대한 ‘새로운 전쟁’ 이론의 답변을 헤어프리트 뮌클러의 생각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려고 한다.

#### IV. ‘새로운 전쟁’이라는 도전과 그에 대한 이론적 응전

먼저 첫 번째 비판, 즉 ‘새로운 전쟁’이 전쟁이 아니라는 비판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비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사실적으로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규범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그것을 전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자가 사실판단이라면, 후자는 가치판단이다. 이 두 가지 판단은 개념적으로는 서로 구분되지만, 현실에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구분되기 어렵다. 가치판단이 인간의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현실 자체를 조형하고, 그럼으로써 사실판단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변화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우리의 가치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 두 가지 판단이,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전쟁’이라는 개념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 어떤 것이 전쟁인지 여부를 따지는 사실판단은 전쟁이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따지는 가치판단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영향을 끼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쟁 개념은 유럽에서 18세기와 19세기를 지나면서 확립되어 국제법적 규범이 되었다. 이 규범에 따라 전쟁은 수행되어야 했고, 그렇게 수행되지 않은 폭력은 범죄로 규정되었다. 이 규범의 실행자이자 수호자가 바로 근대국가이다. 근대국가는 자신이 수행하는 전쟁을 범죄와 구별하고 규범 화함으로써 ‘전쟁의 주인’이 되었다. ‘전쟁’ 개념을 규정하는 국가의 능력은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국가의 독점적 능력에 근거했다. 막스 베버의 표현처럼, 근대국가는 일정한 영토 안에서 폭력의 정당한 사용을 독점

했고(Weber 1992, 158-159), 그런 독점적 권한에 근거해 대외적으로 전쟁을 수행했다. 전쟁에 대한 클라우제비츠의 정의, 즉 “다른 수단을 이용한 정책의 연속”이라는 정의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Clausewitz 1980, 210). 여기에서 정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가와 정부로 가정된다. 이는 전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이른바 전쟁의 ‘삼위일체’), 곧 정부와 사령부, 인민 가운데 하나인 정부의 기능이 이성인 것과도 관련된다. 욕구가 인민의 기능이고, 전장의 우연한 상황 변화에 반응해 이루어지는 전략적·전술적 판단이 사령부의 역할이라면, 장기적인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적 판단은 오로지 정부의 몫이다. 클라우제비츠의 후기 전쟁관은 이처럼 국가를 전쟁의 주인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것을 도구적 전쟁관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전기의 실존적 전쟁관의 수정 내지 극복으로 간주되기도 한다.<sup>22)</sup>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관에 대한 해석의 옳고 그름을 떠나 오랫동안 전쟁은 위에서 언급한 클라우제비츠의 정의에 따라 그런 것으로 이해되었다. 일시적으로 주권을 둘러싼 내전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국가간 전쟁이라는 표준적 모델은 부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내전을 통해 국가와 국가간 전쟁 모델의 지위는 더욱 확고해졌다. 내전이 정당하게 전쟁을 치를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과도기적 무장 분쟁을 의미했기 때문이다.<sup>23)</sup> 그러나 뮌클러는 전쟁에 대한 클라우제비츠의 또 다른 정의, 곧 전쟁이 “진정한 카멜레온”이라는 말에 주목한다(Clausewitz 1980, 212; 뮌클러 2017, 274). 이 말은 전쟁이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의 환경에 맞춰 자신의 색을 바꾼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전쟁의 본질은, 그것이 전쟁의 개념을 규정할 때에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인데, 특정 시기와 장소에 등장한 전쟁의 양태와 구분되어야 한다. 본질과 양태를 구분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저 인식론적으로 오류를 범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안보

22) 이에 대해 자세하게는 Münkler(1998) 참조.

23) 이는 패권전쟁을 통해 패권국의 교체만 이루어지고 질서의 모델 자체는 모든 분쟁 참가자들에 의해 인정됨으로써 오히려 안정되는 원리와 같다(뮌클러 2015, 103).

위협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뮌클러는 문제가 전쟁에 대한 유럽인들의 고정관념에 있다고 생각한다. 유럽인들은 그동안 국가간 전쟁을 표준화한 후, 그런 국가간 전쟁의 (규모는 커졌을 지라도) 발발 빈도가 줄어든다는 사실에서 선불리 전쟁의 점진적 소멸과 평화의 궁극적 도래를 전망해왔다. 냉전의 종식과 중부와 동부 유럽에서의 체제 전환 후에 유럽인들이 보인 열광은 바로 이런 낙관적 전망에 근거했다. 그러나 사실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형태를 바꾸어 유럽 외의 다른 곳에서 계속되었으며, 냉전이 끝난 후 유럽의 ‘뒷마당’, 발칸반도에서 끔찍한 형태로 벌어졌으며, 흑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도 “지구적 내전”의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네그리·하트 2008). 다만 유럽인들이 그 사실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 현상들이 유럽인들의 고전적 전쟁 개념을 통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전적 전쟁 개념이 실제의 현실에 근거해 확립되었고 현실의 폭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념이 가진 규제적 힘이 오늘날 현실의 일탈적 경향을 더는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변화한 현실에 맞게 개념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유익하다는 것이 뮌클러의 생각이다.

국제법학자들이 기존의 전쟁 개념과 모델을 고수하며 그것이 현실에 대해 규제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면, 정치학자인 뮌클러는 변화한 현실에 맞게 개념과 모델을 수정하여 새로운 안보 위협에 유효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전쟁 개념과 관련해 오늘날 정치적 행위자들은 기존의 개념과 규범을 고수함으로써 폭력적 현실에 눈감을 것인지, 아니면 그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기존의 개념이 지녔던 규범적 힘을 포기할 것인지의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 과연 현대의 군사적 폭력들에 “전쟁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그 행위에 일정한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폭력 사태의 악화를 조장하는 것일까? [반대로] 기존의 국가간 전쟁 모델을 고수하면서 폭력 사용의 국가하위적 형태들에 전쟁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전쟁 현상의 새로운 전개들에 눈을 감는 것일까?”(뮌클러

2012, 18) 전쟁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지는 늦어도 2001년 9월 11일 이후로는 학술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질문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정치적 중요성을 가지는 결정이 되었다.<sup>24)</sup> 새로운 폭력 전개 현상이 전쟁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 앞에서 뮌클러는 ‘전쟁’이라는 개념을 기꺼이 사용하려는 편에 선다. 클라우제비츠를 따라 뮌클러는 전쟁이 고정된 형태를 가지지 않고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위의 환경 변화에 맞춰 자기의 색깔, 즉 겉모습을 바꾼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전쟁의 수행방식이 과거와 다르다고 해서 전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그 본질은 여전히 똑같이 관찰될까? 이에 대한 뮌클러의 생각은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겠다.

이제 두 번째 비판, 즉 ‘새로운 전쟁’이 새롭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생각해 보자. ‘새로운 전쟁’ 논자들은 과연 이 전쟁에서 무엇이 새롭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뮌클러는 이 ‘새로운 전쟁’에서 관찰되는 주요 현상들이 역사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는 비판에 일견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뮌클러는 우리의 머릿속에 전쟁의 고정적인 모습을 각인한 “대칭적 전쟁의 시대가 오히려 세계사적으로 예외”라고 말한다(뮌클러 2012, 9; 2017, 285-286). 왜냐하면, 대칭적 전쟁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취하는 영토국가들이 하나의 체계를 이룬 곳에서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의 대칭성이 동일 문화권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우세한 것과 결합되어 있고, 문화간의 전쟁에서는 비대칭적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칭적 전쟁이 동일한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그것도 동일한 형태를 가진 영토국가들의 체계가 형성된 유럽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했으며, 그 밖의 공간과 시간에서는 비대칭적 형태의 전쟁이 우세했다는 것이다.

---

24) 그리고 이 결정은 과거에도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가진 주체가 내렸듯이, 오늘날에도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가진 주체가, 그러나 과거와 다르게 매우 비대칭적인 유형의 주체, 곧 국가하위적인 새로운 전쟁 행위자들과 미국과 같은 제국적 행위자가 내리고 있다. 유럽(과 독일)이 그런 행위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되어야 하는지를 뮌클러는 또한 묻는다. 이에 대해서는 뮌클러(2015), 353쪽 이하와 Münkler(2015) 참조.

그러나 뮌클러는 비대칭성이 새로운 전쟁의 한 가지 특징에 불과하며, 그것이 서구 세계의 과거와 서구 바깥의 세계에서 언제나 현저하게 발견된다고 해서 ‘새로운 전쟁’ 테제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전쟁폭력의 비대칭화(Asymmetrisierung) 외에도 전쟁의 사사화(Privatisierung)와 탈군사화(Entmilitarisierung)가 ‘새로운 전쟁’의 또 다른 특징이며, 이 세 가지 측면의 변화가 서로 다른 요소들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발전하는 것이 ‘새로운 전쟁’의 진짜 새로운 점이기 때문이다(Münkler 2006, 134-135).

새로운 전쟁 이론은 이 세 변화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어떤 것도 다른 두 변화 없이 이해되거나 묘사될 수 없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새로운 전쟁 이론의 결정적 핵심이다. 새로운 전쟁의 본질적으로 새로운 점은 이 세 변화가 모두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각각의 갈래는 전에도 관찰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전쟁 이론이 전쟁사에서 이미 벌써부터 있었던 요소들을 새로운 것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쉽게 제기되는 것이다. 바로 식민전쟁에서 새로운 전쟁의 몇 요소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은 새로운 전쟁 이론 주장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새로운 전쟁의 새로운 점은 세 변화가 함께 일어난다는 데에, 그리고 그 변화들이 서로를 강화한다는 데에 있다. (뮌클러 2017, 267)

뮌클러는 현대의 전쟁 사건들 속에서 서구의 과거와 서구 바깥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낯은’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강화하는 ‘새로운’ 현상을 관찰하면서 그것이 ‘새로운 전쟁’의 새로운 점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고전적인 유럽의 전쟁 모델이 예전의 각인하는 힘도, 방향을 제시하는 힘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뮌클러 2017, 286).

여기에서 잠시 ‘낯은’과 ‘새로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비판

자들이 오해하면서 불편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전쟁 앞에 붙은 이 ‘낡은’과 ‘새로운’이라는 수식어인데, ‘새로운 전쟁’이 전혀 새롭지 않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이 충분히 이루어지더라도, 여전히 비판자들은 그 수식어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로 ‘새로운’이라는 수식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이고, 둘째로 ‘새로운’ 전쟁이 쉽게 ‘낡은’ 전쟁의 대체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뮌클러 역시 ‘새로운 전쟁’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현상을 명확하고 사실적으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는 전통적 개념인 ‘내전’이나 ‘작은전쟁(또는 게릴라전쟁)’ 외에 현대의 학자들이 제안하는 다른 여러 개념들, 즉 ‘야만적 전쟁’(볼프강 조프스키), ‘분자적 내전’(한스 마그누스 엔첸스베르거), ‘신 흡수적 전쟁’(트루츠 폰 트로타) 등도 검토해보지만, 이것들이 모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sup>25)</sup> 그러나 이처럼 새로운 전쟁을 개념적으로 명확하면서도 사실적으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개념과 이론을 만드는 능력의 부족에 기인하기보다, 오히려 하나의 정합적인 이론은 고사하고, 정합적인 개념 안에 제대로 담기조차 어려운 복잡하게 발전하는 최근의 전쟁 현상에 기인한다”고 뮌클러는 생각한다(뮌클러 2012, 59).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날 관찰되는 (전통적 내전과는 다른) 사회내(innergesellschaftlich) 전쟁과 (그것이 국경을 가로지르며 신속하게 확산된 결과인) 초국가(transnational) 전쟁, 테러 전략, 테러조직의 병참기지를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 등을 모두 포괄하여, 메리 캘도어가 먼저 사용한, ‘새로운 전쟁’이라는 열린 개념을 아쉬운 대로 사용하기로 한다(뮌클러 2012, 15 & 60).<sup>26)</sup>

25) 이 외에도 현대의 변화한 전쟁 양상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 예컨대 ‘하이테크 전쟁’(싱어), ‘네트워크 전쟁’(터필드), ‘하이브리드 전쟁’(호프만), ‘리스크 전이 전쟁’(벡), ‘인스턴트 전쟁’(카스텔스) 등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한 가지 특징만을 강조할 뿐, 종합적인 상을 제시하지 못한다.

26) 그런 의미에서,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뮌클러가 클라우제비츠를 따라 전쟁의 본질과 양태를 구분하고 오늘날 전쟁이 마치 카멜레온처럼 변화한 환경에 맞춰 자기의 양태를 바꾸고 있지만 대립하는 의지들의 충돌이라는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마치 전쟁의 본질이 바뀌기라도 한 것처럼 ‘새로운 전쟁’을 주장하는 것은

또한 뮌클러는 『새로운 전쟁』 한국어판 서문에서, 2002년 책이 처음 출간된 후 제기된 비판을 의식하며, ‘새로운 전쟁’이라는 개념이 어떤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명칭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베버적 의미의 이념형”이라고 설명한다(뮌클러 2012, 11). 이념형은 현실 세계 속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가진 유사점과 차이점을 다루기 위해 어떤 사회 현상의 주요 측면들 가운데 일부만을 강조하여 연구자가 순수하게 구성한 것이다(기든스·서튼 2018, 92-97). ‘새로운 전쟁’이 변화하는 현실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가 이념형으로서 구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비판자들은 ‘새로운 전쟁’의 특징들이 덜 뚜렷한 전쟁을 사례로 들어 반증하려고 하지만, 뮌클러에 따르면, ‘새로운 전쟁’ 이론은 그런 식으로 반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전쟁이 ‘새로운 전쟁’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그저 사태 전개에 지배적 경향이 그렇다고 주장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지난 십여 년 동안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고 뮌클러는 말한다(뮌클러 2012, 11-12; Münkler 2018a, 1888).

‘새로운 전쟁’의 새로움이 그 전쟁의 주요한 (각각 떼어놓고 보면 그리 새로운 것 없는) 특징들이 오늘날 서로 결합하여 강화한다는 데에 있고, 그런 복잡한 현실을 명료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잡아낼 개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새로운’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며, ‘새로운 전쟁’ 이론이 이제 모든 전쟁이 ‘새로운 전쟁’의 형태로 치러진다는 일반적 주장이 아니라, 현실의 변화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이념형적 구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여더라도, 여전히 ‘새로운 전쟁’ 이론이 변화를 너무 과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뮌클러는 “변화를 일찌감치 내지는 정치적으로 제때에 감지하려면 바로 그런 과장이 필요하다”고 답한다(뮌클러 2017, 288). ‘새로운 전쟁’에 관한 논의가 기본적으로 법학적이거나 역사학적인 관심보다는 (안보)정책적 관심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전쟁’이라는 개념을 먼저 사용한 메리 켈도어 역시 이 개념을 옹호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모순이라고 하는 비판은 핵심을 벗어난 것이다.



‘새로운 전쟁’ 테제의 비판자들은 ‘새로운 전쟁’의 분석과 관련해 유용한 것이 그 주장의 정책적 함의임을 종종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히 핵심이다. ‘새로운’이라는 용어는 전쟁의 본성에 관한 ‘낡은’ 가정을 배제하는 방법이고 새로운 연구 방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1990년대의 분쟁들을 ‘새로운’ 것으로 묘사하는 것의 목표는 이 분쟁들을 조사하는 학자들의 방법을 바꾸고 그럼으로써 정책입안자들과 정책형성자들이 이 분쟁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Kaldor 2013, 3)

그러나 이 강력한 (안보)정책 지향적 성격이 네 번째 비판, 즉 ‘새로운 전쟁’ 이론이 서구의 안보정책적 필요에 따라 새롭게 적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유발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순서에 맞춰 세 번째 비판에 대한 뮌클러의 생각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새로운 전쟁’ 이론이 공간적으로 유럽중심적이라는 비판, 즉 지극히 유럽적 현상인 국가간의 대칭적 전쟁을 표준화하고서, 그런 전쟁이 점점 쇠퇴하고 (유럽 바깥에서는 이미 늘 있었던) 비대칭적인 지위의 행위자들에 의해 비대칭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전쟁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관찰이 유럽중심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과연 뮌클러는 무슨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번에도 역시 뮌클러는 국가간에 치러지는 대칭적 전쟁의 모델이 유럽중심적으로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심지어 그런 전쟁의 모델이 공간적으로 유럽조차 다 포괄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뮌클러 2017, 271). 그러나 뮌클러는 이 유럽적 모델이 근대 이후 유럽은 물론이고 유럽 바깥에서 전쟁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유럽적 모델은 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정치적 발전과 군사적 발전의 전망과 리듬을 미리 정했다. 파르티잔 전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한 국가들마저도 이후엔 군대를 유럽적 모범에 따라 편성했다. 파르티잔 집

단들은 정규군으로 변모되고 지하 전사들은 병사들로 전환된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신생 국가가 완전한 국가적 성격을 갖추려면 비대칭적 기원은 제거되고 대칭적 전쟁 수행 능력을 기초로 상호 인정에 대한 주장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민클러 2017, 284)

민클러는 오늘날 전쟁의 행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비대칭적 기원을 제거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 행위자가 되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이른바 ‘베스트팔렌 체제’의 구속력이 약해졌지만, “전 지구적 관계에 투사된 유럽적 전쟁 모델이 최근까지도 정치적 관념세계를 각인해왔다”고 주장한다(민클러 2017, 285-286).

유럽적 전쟁 모델이 지금까지 지구적으로 해온 규범적 역할에 대한 강조가 하나의 사실적 판단이라면, 민클러는 또한 그것이 설령 유럽중심적이었더라도 하나의 규범으로서 지구적으로 작용한 것이 전쟁폭력의 통제와 관련해 유익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새로운 전쟁’ 이론을 유럽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유럽 바깥에 이미 늘 그런 전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폭력의 통제나 그에 필요한 규범의 형성 자체보다 누구의 규범인지, 즉 규범의 ‘정체성’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민클러는 문명들 간의 이해가 동일 문명 내에서의 이해보다 더 어렵고, 그래서 문명들 간의 전쟁이 동일 문명 내에서의 전쟁보다 더 파괴적이기 때문에, 지구적 차원에서 전쟁폭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문명들 간에 오해가 증가하고 소통이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간에 폭력을 통제할 수 있는 국제적 규범을 형성하고 그런 것으로 자리 잡은 것을 지키는 것이 규범의 ‘정체성’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새로운 전쟁’ 이론에 제기되는 네 번째 비판에 대해 생각해 보자. 과연 ‘새로운 전쟁’은 탈냉전 시대에 ‘새로운 적’을 요구하는 서구 세계의 안보정치적 필요에 의해 구성된 것일까? 이 문제는 이론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복잡한 이론

적 논쟁과도 관련된다. ‘새로운 전쟁’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분히 이론의 구성적 힘을 과장한다면, 뮌클러나 켈도어는 관찰의 이론의존성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전쟁’ 개념과 이론이 학자들의 연구 방법을 바꾸고 그것이 다시 정치인들의 정책 방향을 바꾸기를 기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전쟁’ 개념과 이론이 현실의 실제적 변화와 무관하게 단순히 특정 국가와 세력의 국내정치적 필요나 세계정치적 필요에 따라 학자들과 정치인들의 머릿속에서 고안되어 현실을 구성하는 힘을 발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켈도어의 ‘새로운 전쟁’에 관한 주장은 유럽의 뒷마당인 발칸반도에서 실제로 벌어진 유고슬라비아 해체전쟁에 주목하며 제기되었고, 뮌클러의 ‘새로운 전쟁’에 관한 주장도 마찬가지로 유럽 주변의 세계에서 실제로 지속되는 전쟁들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필요에서 제기되었다.

오히려 뮌클러는 “갈등의 문화화”에 반대한다(Münkler 2004, 363). 어떤 폭력 행위에 합리성을 부여하지 않고 비합리적 문화와 종교가 계몽되고 문명화한 세계를 공격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에 반대한다.<sup>27)</sup> 새로운 전쟁이 작동하는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뭉뚱그려 “문명들 간의 거대전쟁”으로 묘사하는 것에 반대한다(Münkler 2004, 363). 전쟁을 문화화하거나 종교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뮌클러의 이론적 입장은 전쟁을 억제하려는 실천적 목표와도 관련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전쟁’ 개념과 이론이 ‘영구적 전쟁’을 위해 적을 구성하려는 것이거나 적을 단순히 ‘악’이나 ‘야만’으로 구성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은 적어도 뮌클러에 대해서는 정확한 비판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미국과 서구 국가들의 대외 정책에 대해 쉬운 비판을 가하는 것일 뿐이다. 뮌클러는 “새로운 전쟁도 고유의 합리성을 보유했으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학이 그 전쟁을 제한하는 일에 제공할 수 있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기여일 것”이라고 말한다(Münkler 2004, 363).

27) 이 점에서 뮌클러는 헌팅턴의 세계정치적 전망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에 관해서는 또한 Münkler(2000), 특히 66쪽 이하 참조.

여기에서 잠시 ‘적’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전쟁’ 개념과 이론이 탈냉전 시대에 ‘새로운 적’을 구성함으로써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서구의 시도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당위적으로 적이 없는 세계를 지향한다. 이 세계에 적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구성한 것이거나 부당한 전쟁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이 없는 세계란 과연 어떤 것일까? 그 한 가지 모습이 매우 이상적인, 정말로 적(hostis)이 없는 세계공동체라면, 다른 한 가지 모습은, 홉스가 상상한 것과 같은, 모두가 서로 적(inimicus)이어서 따로 적(hostis)이라고 부를 것이 없는 ‘자연상태’일 것이다.<sup>28)</sup> 홉스적 자연상태에서 세계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평화라고 여긴다면, 그 과정에서 사적인 적 규정을 금지하고 공적인 적 규정을 관철함으로써 폭력을 통제하는 근대적 주권국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칼 슈미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을 통해 세워진 국제질서, 즉 친구와 적을 주권적으로 구분하고 적에 대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가진 국가들의 세계가 국가의 그런 권한을 부정하는 평화주의와 국경을 가로지르는 계급간 전쟁을 선동하는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무너져가는 현실에 주목한 바 있다.<sup>29)</sup> 오늘날 한쪽에 지구적 내전(성전)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면, 다른 한쪽에 낭만적 세계공동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양쪽 모두 국가를 전쟁의 주인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과연 무엇이 지구적으로 폭력을 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길일까? 전쟁에 대한 통제력을 국가가 되찾는 것일까, 아니면 국가가 그것을 포기하고 일종의 세계정부에 양도하는 것일까? 뮌클러는 적의 실체가 잘 보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가 적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적의 논리를 이해하여 폭력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적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상상하여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그런 적을

28) 사적인 적(inimicus)과 공적인 적(hostis)의 구분과 그 의미에 관해서는 슈미트(2012), 3장 참조.

29) 이에 관해서는 Münkler & Straßenberger(2016), 43쪽 이하 참조.

상대로 불의한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그 반대로 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다가 불시에 공격당해 질서 자체를 잃어버리지도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새로운 전쟁’ 이론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고전적 전쟁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서 현대의 새로운 전쟁들을 클라우제비츠 후의 전쟁으로 간주한다는 비판이다(Strachan & Herberg-Rothe 2007; Schuurman 2010). 이 비판은 기본적으로 전쟁(형태)의 변화 명제에는 동의한다. 다만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이 변화한 전쟁 양상을 설명하는 데에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생각이 다를 뿐이다. 이 비판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전쟁은 다른 수단을 이용한 정책의 연속’이라는 정의나 국가, 군대, 인민의 이른바 ‘삼위일체’와 관련된 교리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새로운 전쟁 현상을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으로써 더는 설명하고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반대해 제기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전쟁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클라우제비츠가 체계화한 전쟁의 모습에서 많거나 적게 벗어나 있다고 주장한 여러 학자들<sup>30)</sup>과 다르게 뮌클러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이 여전히 유효함을 주장해왔다.

클라우제비츠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가 전쟁을 ‘다른 수단을 이용한 정책의 연속’으로 정의한 것이나 인민, 군대, 정부의 ‘놀라운 삼위일체’에 관해 이야기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뮌클러는 클라우제비츠가 또한 (!) 전쟁을 “진정한 카멜레온”이라고 일컬었으며, 전쟁이 “확장된 양자투쟁”과 다르지 않고, 그러므로 “상대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를 실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폭력 행위”라고 정의한 것에 주목한다(Clausewitz 1980, 191; Münkler 2004, 365). 뮌클러에 따르면,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이 타자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제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고, 다만 전쟁의 형태가 상황과

30) 예컨대 크레펠트(Creveld 1991)가, ‘새로운 전쟁’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전쟁의 변화와 관련해 클라우제비츠의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한다면, 키건(Keegan 2004)은 전쟁의 변화와 상관없이 “스승 리들 하트의 전통 속에서 프로이센의 전쟁이론가”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이 처음부터 틀렸다고 주장한다(뮌클러 2017, 263-264).

환경에 따라, 마치 카멜레온의 몸 색깔이 주변 환경에 따라 바뀌듯이, 변한다고 생각했다. 뮌클러는 “여전히 전쟁에 대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나폴레옹을 통해 발전된 전쟁수행 형식의 인상 아래” 있지만, “이것은, 클라우제비츠를 인용해 말하자면, 전쟁이라는 카멜레온의 특정한 외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쟁이 자기 겉모습을 바꿨을 때, 전쟁을 전쟁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속게 된다”고 말한다(Münkler 2004, 368).

뮌클러에 따르면, 클라우제비츠의 ‘놀라운 삼위일체’ 개념을 구체화한 인민, 군대, 정부,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욕구, 영혼, 이성, 이는 나폴레옹 후의 시대와 관련된 생각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적 구체화”이다(Münkler 2004, 364-365).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이른바 그의 ‘후기 사상’으로 환원하고, 다시 그것을 ‘역사적 구체화’로 이해할 때,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그저 특정 시대의 산물이 되고, 오늘날 더는 유효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러나 뮌클러에 따르면 프로이센의 해방전쟁기와 그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에 클라우제비츠는 다르게 생각했다.<sup>31)</sup> 그저 다르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외형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했으며, 그 변화를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묘사했다. 바로 이 점이 클라우제비츠를 정치사상의 고전으로 만든다고 뮌클러는 주장한다.

전쟁의 외형의 영구적 변화는 클라우제비츠의 생각에 따르면 힘을 측정할 때의 폭력성, 폭력을 사용할 때의 창의성, 그리고 전쟁으로써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때의 합리성이 영구적으로 변화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에서 생겨난다. 늘 반복해서 바뀌는 것은 사용되는 폭력의 종류, 목표의 선택, 그리고 전사의 충원과 훈련이다. 아무리 카멜레온 같은 성격이 있지만 모든 전쟁에 당연히 공통적인 것은, 클라우제비츠에 따르면, 그것이 두 개의 의지들의 상호충돌이라는 것이다. 그 의지

31) 클라우제비츠의 도구적 관념이 지배적으로 드러나는 후기의 전쟁관과 실존적 관념이 지배적인 전기의 전쟁관에 대해서는 Münkler(1998) 참조.

들은 상반된 의향을 따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고, 폭력적 수단을 이용해 그 의지를 관철할 힘을 서로 시험해본다. (Münkler 2004, 365)

많은 사람들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과 동일시하는 전쟁의 ‘도구성’은, 뮌클러에 따르면, 많은 전제조건을 요구하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동할 수 없다. 그러나 ‘의지의 충돌’이라는 전쟁의 본질을 일반적 정의로 받아들이는 경우, 새로운 전쟁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9.11 테러와 같은 최근의 테러 행위를 파악하는 데에도 유익하다. 뮌클러는 테러 행위자들이 예전 처럼 성명서도 낭독하지 않고 정치적 요구도 하지 않으므로써 미국과 서구문명 전체를 일체의 타협이 불가능하고 모든 수단을 이용해 싸워야 할 적으로 간주한 것을 정치적 의지를 부정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극단적으로 정치적 의지를 높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리적 폭력의 사용이 그 전체 범위에서 지성이 함께 작용하는 것을 결코 배제하지 않으므로, 이 폭력을 무자비하게, 피를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자는, 상대가 똑같이 하지 않으면, 우위를 차지한다”는 클라우제비츠의 표현처럼(Clausewitz 1980, 192), 고전적 전쟁에서 결전이 도덕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물리적인 힘의 도움으로 측정하는 것이었다면, 현대의 테러 전략은 그 반대로 상대의 도덕적 힘을 직접 겨냥하여 상대의 취약성(탈영웅성)을 드러냄으로써 자기의 도덕성(영웅성)을 키우려고 한다는 것이다.<sup>32)</sup>

뮌클러는 클라우제비츠가 새로운 전쟁의 현상들을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는 데에도 유익하지만, 당연히 고전적인 국가간 전쟁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며, 핵전쟁의 위험이 높아진 시기에 더욱 그렇다고 주장한다. 핵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더욱 합리적 행위자에 의존하며, 국가 외에 달리 그런 합리적 행위자가 없기 때

32) 이에 관해 자세히는 뮌클러(2012), 207쪽 이하 참조. 그러나 칼도어(Kaldor 2013, 13)는 새로운 전쟁이 ‘의지들의 싸움’이 아니라 ‘상호(모험적) 사업’에 가까우며, 그래서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보다 결판이 나지 않은 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개념을 비판한다.

문에도 국가 행위자의 중요성은 결코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뮌클러는 크레펠트나 엔첸스베르거(Enzensberger) 같은 사람들이 전쟁의 변화를 다른 방향으로 과장하면서 사실상 전쟁을 주어로 놓는 것을 비판한다(뮌클러 2012, 72-75; Münkler 2000).

## V.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독일의 정치학자 헤어프리트 뮌클러의 ‘새로운 전쟁’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오늘날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 전쟁의 변화와 그것의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9.11 테러와 함께 촉발된 ‘새로운 전쟁’ 논의는 과거의 고전적 전쟁 모델과 사뭇 다르게 전개되는 현대의 전쟁 사건들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군사적·정치적 대응을 제안하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전쟁’ 개념과 이론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는 비판, 그것이 전쟁이더라도 전혀 새롭지 않다는 비판, ‘새로운 전쟁’ 논의가 유럽중심적이라는 비판, 그것이 탈냉전 시대의 안보정책상의 필요에 의해 ‘새로운 적’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것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이제 쓸모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뮌클러는 이런 비판들에 대해, 그것을 전쟁으로 보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익하며, ‘새로운 전쟁’의 새로움은 기존에 있었던 요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며 서로 강화한다는 데에 있고, 유럽적 기원을 가진 고전적 전쟁의 모델과 그에 근거한 국제법적 규범이 비서구 세계에서도 여전히 사태를 각인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전쟁’ 개념과 이론은 없는 적을 단순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적의 합리적 이해를 통한 전쟁의 통제를 목표로 하며, 마지막으로 클라우제비츠의 통찰이 ‘새로운 전쟁’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전쟁’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는 한편으로 전쟁의 변화를 개념화하고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전쟁론이 진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서구)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의 규정과 그에 대한 군사적·정치적 대응 방식의 결정을 둘러싼 지적 경쟁을 또한 엿볼 수 있다. 전쟁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실천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에 관한 이론적 논의만큼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전쟁에 관한 이론적 논쟁 속에서 뮌클러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힘으로써 독일과 유럽의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럼으로써 정치적 질서의 변화에 작용하려고 한다. 이런 뮌클러의 태도는 분과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이 규범지향적인 법학이나 과거지향적인 역사학에 비해 정책조언자의 역할에 더 적합하며, 그런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의 반영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미국 중심의 세계 인식과 그에 근거한 대응에서 벗어나 유럽 중심의 세계 인식과 그에 근거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다.

‘새로운 전쟁’에 관한 논의들은 전쟁의 양태, 즉 전쟁의 구체적인 수행 방식이 오늘날 새로운 환경에 맞춰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도 1950년에 대규모의 전쟁이 고전적 전쟁의 모델을 따라 치러진 후 지금까지 그와 같은 국가간 전쟁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전쟁의 위협과 위협이 사라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뮌클러는 『새로운 전쟁』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반도는 북한이 군사력 외의 다른 힘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도 또한 대칭적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줄어드는 보편적 경향의 예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말은 오늘날 ‘의지의 충돌’로서의 전쟁이(예컨대 미중간의 ‘무역전쟁’이나 발칸반도와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인종청소처럼)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벌어지지만, 한반도에서는 예외적 조건으로 인해 미북간 또는 남북간의 대칭적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비대칭적 전쟁의 발발 가능성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행한 일일까? 한편으로는(대칭적)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지만, 이른바 ‘새로운 전쟁’의 형태로 전쟁이 치러질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낮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칭적 전쟁은 여전히 그것의 주인인 국가의 통제 아래 있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기도 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전쟁’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내부 붕괴와 같은 비상사태 후에 국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군사력이 자율성을 획득하면서 ‘새로운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예멘 출신 난민들이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의 주변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전쟁’은 중심부 국가의 일원인 한국에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주변부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하고, 난민들의 보호와 조속한 귀국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경우는 이 글에서 ‘새로운 전쟁’ 논의에 대해 제기된 한 가지 비판, 즉 그것이 유럽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비서구 세계의 경험을 간과한다는 비판에 대한 뮌클러의 답변의 중요한 사례이다. 동북아시아는 유럽적 국제법 규범이 비서구 다른 세계에 비해 유효하게 작동하는 곳이고, 한반도는 바로 그 모델에 의해 세워진 두 나라가 대립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전쟁’은 유럽인에게만 유독 ‘새로운’ 전쟁이 아니라, 분명히 한국인에게도 ‘새로운’ 전쟁이다. 우리의 과제는 동북아시아에서 이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줄이고, 고전적 전쟁의 모델을 따라 경쟁하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왜곡과 실패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새로운 전쟁’에 관한 논의는 이 점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을 제공한다.

## 참고문헌

- 기든스, 앤서니. 1991. 『민족국가와 폭력』. 삼지원.
- 기든스, 앤서니·서튼, 필립 W. 2018.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동녘.
- 네그리, 안토니오·하트, 마이클. 2008. 『다중』. 세종서적.
- 뮌클러, 헤어프리트. 2012. 『새로운 전쟁: 군사적 폭력의 탈국가화』. 책세상.
- 뮌클러, 헤어프리트. 2015. 『제국: 평천하의 논리』. 책세상.
- 뮌클러, 헤어프리트. 2017. 『파편화한 전쟁: 현대와 전쟁폭력의 진화』. 곰출판.
- 슈미트, 카를. 2012. 『정치적인 것의 개념』. 살림.
- 조한승. 2010. “전쟁의 삼위일체에 대한 4세대 전쟁 주창자들의 비판 고찰” 『대한정치학회보』. 17집 3호, 145-168.
- 쿠르바즈, 유세프·토드, 에마누엘. 2008. 『문명의 충돌이냐 문명의 화해냐』. 친디루스연구소.
- 킹, 한스. 1992. 『세계유리구상』. 분도출판사.
- 토드, 엠마누엘. 2003. 『제국의 몰락: 미국 체제의 해체와 세계의 재편』. 까치.
- 틸리, 찰스. 2018. 『유럽 국민국가의 계보』. 그린비.
- 홍태영. 2016. “새로운 전쟁‘과 국민국가의 위기” 『국방연구』. 59권 1호, 83-107.
- Chojnacki, Sven. 2006. “Verführung des Neuen — oder: der Gesang der Sirenen. Eine kritische Bestandsaufnahme der Debatte über den Wandel der Kriegsformen.” Jörg Calließ & Christoph Weller(eds.). *Chancen für den Frieden. Theoretische Orientierungen für Friedenspolitik und Friedensarbeit*. Rehbürg-Loccum.
- Clausewitz, Carl von. 1980. *Vom Kriege*. Werner Hahlweg(ed.). Bonn: Ferd. Dümmlers Verlag.
- Creveld, Martin van. 1991. *The Transformation of War*. New York: Simon & Schuster.
- Dießenbacher, Hartmut. 1998. *Kriege der Zukunft: Die Bevölkerungsexplosion gefährdet den Frieden*. München & Wien: Carl Hanser Verlag.
- Howard, Michael. 2002. “What’s in a Name? How to Fight Terrorism.” *Foreign Affairs* 18(1): 8-13.

- Kaldor, Mary. 1999. *New and Old Wars: Organised Violence in a Global Era*. Cambridge: Polity Press.
- Kaldor, Mary. 2013. "In Defence of New Wars." *Stability* 2(1) Art. 4: 1-16.
- Keegan, John A. 2004. *History of Warfare*. London: Pimlico.
- Langewiesche, Dieter. 2009. "Wie neu sind die Neuen Kriege?" Georg Schild & Anton Schindling(eds.). *Kriegserfahrungen*. Paderborn et al.: Schöningh, 289-302.
- Luttwak, Edward N. 1999. "Give War a Chance." *Foreign Affairs* 78(4): 36-44.
- Mueller, John. 2004. *The Remnants of War*.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Münkler, Herfried. 1998. "Instrumentelle und existentielle Auffassung vom Krieg bei Carl von Clausewitz." *Leviathan* 16(2): 235-251.
- Münkler, Herfried. 2000. "Die Kriege der Zukunft und die Zukunft der Staaten." Wolfgang Knöbl & Gunnar Schmidt(eds.). *Die Gegenwart des Krieges. Staatliche Gewalt in der Moderne*. Frankfurt/M., 52-71.
- Münkler, Herfried. 2001. "Sind wir im Krieg? Über Terrorismus, Partisanen und die neuen Formen des Krieges."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42(4): 581-589.
- Münkler, Herfried. 2004. "Clausewitz und die neuen Kriege: Über Terrorismus, Partisanenkrieg und die Ökonomie der Gewalt." Wilhelm Heitmeyer & Hans-Georg Soeffner(eds.). *Gewalt: Entwicklungen, Strukturen, Analyseprobleme*. Frankfurt/M.
- Münkler, Herfried. 2006. "Was ist neu an den neuen Kriegen? Eine Erwiderung auf die Kritiker." Anna Geis(ed.). *Den Krieg überdenken. Kriegsbegriffe und Kriegstheorien in der Kontroverse*. Baden-Baden: Nomos Verlag, 133-150.
- Münkler, Herfried. 2009. "Visualisierungsstrategien in politischen Machtkampf." Herfried Münkler & Jens Hacke(eds.). *Strategien der Visualisierung: Verbildlichung als Mittel politischer Kommunikation*. Frankfurt/M.: Campus Verlag, 23-51.

- Münkler, Herfried. 2015. *Macht in der Mitte: Die neuen Aufgaben Deutschlands in Europa*. Hamburg: edition Körber-Stiftung.
- Münkler, Herfried & Straßenberger, Grit. 2016. *Politische Theorie und Ideengeschichte*. München: C. H. Beck.
- Münkler, Herfried. 2018a. “Neue Kriege.” Rüdiger Voigt(ed.). *Handbuch Staat*. Wiesbaden: Springer VS, 1883-1888.
- Münkler, Herfried. 2018b. “Staatszerfall.” Rüdiger Voigt(ed.). *Handbuch Staat*. Wiesbaden: Springer VS, 1909-1913.
- Newman, Edward. 2004. “The ‘New Wars’ Debate: A Historical Perspective Is Needed.” *Security Dialogue* 35(2): 173-189.
- Shaw, Martin. 2003. *War and Genocide: Organized Killing in Modern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 Schmitt, Carl. 1974. *Der Nomos der Erde im Völkerrecht des Jus Publicum Europaeum*. Berlin: Duncker & Humblot.
- Schuurman, Bart. 2010. “Clausewitz and the ‘New Wars’ Scholars.” *Parameters* Spring, 89-100.
- Strachan, Hew & Herberg-Rothe, Andreas. 2007. *Clausewitz and the twenty first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osa, Hiroyuki. 2010. “Reading Schmitt against Schmitt in the Context of the ‘New Wars’ Debate.” *Journa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tudies* 18(1): 53-70.
- Weber, Max. 1984. “Der Sozialismus.” *Gesamtausgabe*, Bd. 1-15. Tübingen: Mohr.
- Weber, Max. 1992. “Politik als Beruf.” *Gesamtausgabe*, Bd. 1-17. Tübingen: Mohr.
- Weiss, Stefani & Schmierer, Joscha(eds.). 2007. *Prekäre Staatlichkeit und internationale Ordnung*.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On Herfried Münkler's Theorem of 'New Wars'

Gong, Jin Sung | Chosun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s of war and their implications, a very important issue today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focused on the discussion of 'New Wars' by German political scientist Herfried Münkler. The discussion of 'New Wars', sparked by the Sept. 11 terrorist attacks, seeks to understand contemporary war events and propose appropriate military and political responses to them, which develop quite differently from the classical model of war in the past. But there has been considerable criticism of the concept and theory of 'New Wars'. Critics said that it is not war, that it is not new at all even if it is war, that the discussion of 'New Wars' is eurocentric, that it aims at forming a 'new enemy' by the needs of security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or that it misunderstands Clausewitz's theory of war as now useless. However, Münkler answers that it is morally and politically beneficial to see those military conflicts as war, that the newness of 'New Wars' is that existing, not new elements combine and strengthen each other in a new way, that the classical model of war with European origins and the norms of international law based on the model still have the power to regulate the events in the non-Western world, that 'New Wars' concept and theory aim at not just making an enemy who really does not exist, but controlling wars through rational understanding of enemies, and lastly that Clausewitz still has relevance in regard of 'New Wars'. In the discussion of 'New Wars', we can observe the new challenges with which the Western world is confronted, and the theoretical competition of intellectuals taking place over the way of military and political response to them.

---

**Key Words** | New Wars, Herfried Münkler, Change of War, Eurocentrism, Clausewitz